

모두 말씀

2024. 4. 3. (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님,

최유삼 신용정보원장님,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님,

그리고, 8개 은행 부행장님들,

6개 기술신용평가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본축적을 통한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가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위는

전체 기업의 약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기술금융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술금융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기술금융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약 30%를 차지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인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을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금융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기관들과 힘을 합쳐
지난 10년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술금융 개선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

우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한다는
기술금융 취지가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은행이 기술금융을 받은 기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기술등급별로
얼마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더 많은 우대금리를 제공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 시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배점을 높임으로써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2.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 강화

다음으로는,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은행은 평가사와 물량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사의 수준보다는
수수료를 중요하게 고려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수수료가 아닌 평가보고서의 품질에 따라
평가사에 대해 물량을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사가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 지점과 기술신용평가사간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점이 평가사를 선택하지 않고
본점이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3.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기술신용평가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평가 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평가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자가
기술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도 마련하겠습니다.

4. 사후평가 강화

이 외에도,
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이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를 선택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기술금융 규율 강화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여 기술금융이 아닌데도 기술금융으로 평가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기술평가 등급 사전제공 등

이번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